

서울여성회는

서울여성회는 2007년 7월 '삶터와 일터의 주인인 생활인 여성들의 자기 성장, 모두가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며 일상으로부터의 평화실현 및 폭력과 전쟁 없는 사회를 만들기를 목적으로 창립했습니다. 현재 3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 ▶성평등교육지원센터 (성평등 교육 매뉴얼 개발 및 강사 파견)
- ▶아카데미위원회 (월례강좌 및 여성 배움 프로그램)
- ▶축제문화위원회 (서울여성문화축제, 취미 문화 소모임 사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회 동아리들

삼라화 _ 미술모임

선긋기로 시작해서 자기 초상화 완성하기까지 3개월, 3개월이면 나도 화가가 됩니다. 그림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재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동경하기만 했던 가슴 속 꿈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언니와 바람난 기타 그리고 찬

평생 위로가 되는 친구, 기타로 음악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언니들을 만나는 곳. 우리는 기타를 뚝뚝거리며 삶을 노래합니다.

너나 밴드 (너 보란 듯이 나 좋으라고 하는 밴드)

서울여성회의 첫 밴드입니다. 대부분의 회원이 악기를 처음 배우고, 또 배우면서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격주 합주진행, 격주로 모임 진행 예정입니다. 환영합니다.

두루두루 생태모임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앎과 실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꾸는 꿈, 더 나은 환경과 생명에 대한 실천을 지역의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나누기 위한 활동을 할거예요. 한 달에 두 번 방안 공부모임, 한 달에 한 번 바깥 공부로 진행합니다.

여성농민 지킴이단

여성농민들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고 여성농민들과 함께 식량주권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힘이 되는 실천과 연대를 위한 활동을 하려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네이버에서 **서울여성회** 를 검색하세요!



낙태 금지를 말하기 전에,
저출산시대를 말하기 전에,
성적자기결정권을 당당히 말하기 위해

내 몸을 책임지는 가장 탁월한 선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짜 성교육
당당한 우리들 이제 외치자
“NO 피임, NO 섹스!”

피임이
빛나는
밤에

5 회 서울여성문화축제

2011.10.16.SUN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pm2:00 전시+참여부스 pm4~6:00 거리강연+토크콘서트

축 . 제 . 를 . 열 . 며

2006년 서울여성문화축제가 시작되고 이제 다섯 번째 축제의 자리입니다. 여성과 역사, 여성과 안전, 여성과 정치, 여성과 노동 등 여성의 삶과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묵직하면서도 쉽게 이야기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 여성이 원하고 여성이 준비하고 여성이 이야기하고 여성이 즐기는 축제로 꽃피웠습니다. 청계천, 대학로, 그리고 영등포 문래공원 서울 곳곳에서 우리는 한 자락씩 추억을 수놓았습니다.

이번 5회 서울여성문화축제는 '피임과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주제입니다. 올해 역시 묵직하면서도 뜨거운 주제입니다.

'성 산업'이란 말이 생겨날 만큼 성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성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적 권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피임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성들은 압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의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여성들은 압니다. 아직도 이 사회는 남성을 중심으로 권력과 영향력이 주도되기에 일상의 성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피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성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을 위해서, 여성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즐길 수 있고 즐기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피임에 대해서 광장에서 이야기해봅시다. 내가 아는 성과 그가 아는 성, 내가 원하는 성과 그가 원하는 성,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성, 누구의 권리도 침해받지 않은 성에 대해 햇빛 다사로운 거리에 공공연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이번 5회 서울여성문화축제는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사연도 많고 어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서울여성문화축제를 위해 마음을 모아 시간과 품을 들여준 비핵온 회원들이 있어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여성회 **은숙** 회장

"피임 하자는 말이 왜 어려워?"
"콘돔은 누가 준비해야 하지?"
"나만의 피임 노하우를 들려볼래?"

그녀들의 피임에 대한 수다

나, 피 임 하 는 여 자 야 !

진짜 콘돔 없이 하면 더 좋은가요???
남자들 의 몇 초 되지 않는 즐거움을 위해 바늘위에 서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가...??? 객!!! 불안 초조.....너도 하고 싶고 나도 하고 싶니?
그럼 콘돔 쓰자!!!
-노랑나비

콘돔은 장 볼때 같이 사거나 그때 그때 같이 샀었는데.. 재고파악은 내가 했던듯.. ㅋ
그래도 늘 불안불안하지. 섹스와 피임은 셋트라... 그냥 막... 해... 이렇게는 못하겠던데..
망가지는건 내 몸이고 내 인생인 것이라... ㅋ
-낭만달타

콘돔은 상대방의 성적 품성이다.
-정희영

잘 지킨 피임 한번, 열 섹스 부럽지 않다
-반쪽

나랑 자고싶어? 그럼 콘돔 가지고와!!
-익명의 여인

콘돔 사용방법! 1)포장을 벗긴다. 2)콘돔 끝을 비틀어 공기를 빼준다. 3) 씹운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콘돔 사용 설명서를 참고 하세요.
-저도 익명

피임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한마디!
"난 생기면 무조건 낳아...^^"
-당당연니

- 패러디열전 -
피임을 향한 **무한도전!**
1박2일은 콘돔과 함께!
남자의 자격, 콘돔
섹스 앤 더 피임
콘돔끼고 **하이킥**
최고의 사랑은 피임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피임이 빛나는 밤에**

행사내용

pm2:00 사전마당 전시+참여부스 **pm4~6:00 본행사** 거리강연+토크콘서트

100% 피임 성공 촌철살인 한마디 _내 맘대로 손수건 만들기 _강정마을 사진 전시
_길거리 강연 _만담의 광장 _공연(언니와 바람난 기타 그리고 찬 / 너나밴드)
강연 :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지원센터장, 성평등 강사)